

## 아름다운 죽음

유 송 자

제1부회장 · 전진상의원 관장



**오**랜 장마가 견히고 폭염 속에 녹음이 질푸른 생명의 계절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계절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호스피스 활동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죽음이 곁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의 핵심은 죽어가는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여생이 양질의 삶이 되도록 포괄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호스피스 환자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것은 호스피스 활동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약 2개월 전 나는 평소 내 인생의 스승처럼, 집안의 어른처럼 존경하던 친구 아버님이 악성 임파종이라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고 안타깝고 당황해했었습니다. 그래도 치료를 잘 하시면 좋아지시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내면서 겨우 한번 병원으로 찾아 뵈고 말았는데 지난 주 친구로부터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주무시는 듯 조용히 감으신 눈과 평화롭게 다무신 입 언저리로 숨결을 느낄 것 같은 마음에 고인의 손과 발을 잡아보니 아직도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선종 하셨어요..... 아무 고통도 없이 주무시는 듯..... 평화롭게...”

마치 아름다운 소식이라도 전하듯 슬프면서도 평화로운 유가족들을 보며 나는 호스피스에서 말하

는 “행복한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미사에서 본당 신부님이 “오늘 우리는 우리 본당은 물론 이 지역사회의 모든 이가 정신적 지주로 여기며 따르고 존경했던 회장님의 영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처럼 고인은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또 사회 지도자로서 귀감이 되셨고 모범이 되신 분 이셨습니다.

평생을 초야에 묻혀 사시면서 황무지를 일구어 옥토를 만드시고 온갖 아름다운 꽃들과 수목을 기르시어 자연을 가꾸며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지들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주시는 해결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고인이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분의 생애보다 더 크고 깊은 감동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내게 들어온 암과 동반하며 하느님을 향해 갈 것이니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하면서 하느님께 나가라” 하시면서도 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암을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대단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무도 다음날 고인이 운명하시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운명하시기 전날 밤에는 모든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내 평생에 못 해준 드라마 이브를 많이 시켜 주리다”

“당신 먼저 하느님 나라에 가 주세요 나도 바로 뒤 따라 갈게요...”

친구의 부모님이 나누신 마지막 인사였다고 합니다.

고인의 진실하고 성실했던 생애와 아름다운 이별을 보며 나는 자신의 온 생애를 충실히 사는 사람들은 그 생애의 모든 삶이 영적 준비와 품위 있는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죽음이란 바로 오늘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 가슴에 난 상처

“엄마, 지금 뭐해요?”

이제 여섯 살밖에 안 된 수지가 엄마에게 물었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갖다주려고 볶음밥을 만드는 중이란다”

“왜요?”

“왜냐하면 그 분이 매우 슬프기 때문이란다. 얼마전에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를 입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돌봐드려야해”

“왜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죠?”

“수지야, 사람들은 아주 슬플 때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집안 청소같은 작은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불쌍하게도 다시는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심나쁜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도 그분에게 도움이 되어줄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지않겠니?”

수지는 어떻게 하면 아주머니를 돕는 일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을까 심하게 생각했다.

몇분 뒤 수지는 이웃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한참 지나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안녕, 수지야.”

수지는 아주머니가 다른 때와 같이 귀에 익숙은 음악 같은 목소리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또 울고 있었던 듯했다. 눈이 부어 있고 물기에 젖어 축축했다.

“무슨 일이니, 수지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주머니가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났고, 그래서 아주아주 슬프시네요.”

수지는 부끄러워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일회용 반창고가 들려져있었다.

“가슴에 난 상처에 이걸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거예요.”

아주머니는 갑자기 목이 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지를 껴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주어야.”

아주머니는 상점에 가서 둥근 유리 안에 작은 사진을 넣을수 있도록 된 열쇠고리를 하나 사왔다.

그리고 그 유리 안에 수지가 준 일회용 밴드를 넣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인터넷 발췌)